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의료인
전문성을 갖춘 책임감 있는 의료인
사회에 봉사하며 존경받는 의료인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지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1~2)

발행인 : 박혜영 편집인 : 이화영 발행 :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서울 양천구 목6동 911-1 전화 02-2650-5703~4 팩스 02-2653-8891

제 26 호 < 2010. 12 >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

◎ 이화의전원, 의사국가시험 68명 응시, 67명 합격

제 75회 의사국가시험에서 이화의전원은 전체 68명이 응시해 67명 합격, 98.5%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는데 특히 필기시험은 응시자 전원이 합격해 100%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실기시험은 98.5%의 합격률을 보였다. 한편, 제75회 의사국가시험에서는 전체 3376명 중 3095명이 합격해 91.7%를 보였다. 필기시험의 경우 94.4%, 실기시험은 96.0%의 합격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화의전원은 이번 졸업생이 입학한 2007년도부터 통합과정 확대, 임상조기교육 및 환자-의사-사회과정 신설, 임상실습교육 내실화를 목표로 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는데, 이에 학생과 교수진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노력하여 이룬 결실이라고 볼 때 다시 한 번 이화의 우수성을 입증했다고 할 수 있다.

◎ 2011학년도 이화의학전문대학원 정시모집 최종합격자 발표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 12월 7일(화) 2011학년도 정시모집 M.D.과정(의무석사과정)과 M.D.-Ph.D.과정(의무석사/의학박사 복합학위과정)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였다.

2011학년도 총선발인원은 76명으로 수시일반전형에서 44명, 수시특별전형에서 2명을 이미 선발한 바 있으며, 이번 정시일반전형에서 30명을 선발하였다. 또한 수시모집 합격자 및 정시모집 최종1단계합격자 중 M.D.-Ph.D.과정 추가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M.D.-Ph.D.전형에서는 총 2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정시모집 최종합격자의 출신대학은 이화여대가 가장 많으며, 총 13개 대학에서 1명 이상의 최종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학부별 분포 조사에서는 자연과학대학이 19명으로 전체정원의 63.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이어 공과대학, 사범대학(자연계), 사범대학(인문계), 건강과학대학, 약학대학 등의 순으로 다양한 배경과 전공을 지닌 학생들이 합격자에 포함되었다.

박혜영 의학전문대학원장은 “다양한 전공과 뚜렷한 동기를 지닌 최상의 인재가 균형있게 선발되었다.”며 “이 학생들이 앞으로 이화의 울타리 안에서 자부심을 갖고 의료계를 선도할 큰 꿈을 펼칠길 바라고 학교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이화의대 조직손상방어연구센터 개소식

지난 8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하는 선도연구센터

육성사업 기초의약학분야(Medical Research Center, 이하 MRC)에 선정된 이화의대 조직손상방어연구센터(센터장 이지희)가 12월 3일(오전 9시 30분)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들어갔다.



한국연구재단의 '선도연구센터육성사업'은 국내 대학에 산재되어 있는 우수한 연구인력을 분야별로 조직·체계화해 집중 지원하고 세계적 수준의 선도 과학자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 기초의약학분야(MRC) 사업에는 총 14개팀이 신청해 2개팀이 최종 선정됐다. 조직손상방어연구센터는 향후 최장 9년간 총 7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김선욱 총장은 “2010 기초의약학분야(MRC) 사업에 본교 의학전문대학원 조직손상방어연구센터가 선정됨으로써 이화가 그동안 구축해온 생명과학분야의 축적된 인프라가 생명과학기술의 최종 목표인 인간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한층 더 다가설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며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소식을 축하했다.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 2 차관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우수 인재들이 의과학 분야를 전공하여 국가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센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개소식을 축하하였다.

이지희 센터장은 “본 이화의대 MRC 센터가 본교 특성화 사업단으로 선정됨으로써 이 분야의 집중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더 나아가 임상의학 및 생명공학 분야와 학제간 융합연구를 선도하여 명실상부 국내외 의생명분야의 연구 중심이 되는 센터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포부를 밝혔다.

◎ 2010년 의전원 2학년 CPX 시행

2010년 의전원 2학년 CPX가 12월 27일(월)~28일(화)까지 2일 동안 의학관 B동 8층(EMSC, PBL-Room)에서 시행되었다. CPX는 환자 진료로 모의적으로 수행하면서 학생들의 임상 술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본교는 서울-경기 컨소시엄에 소속되어 있어 컨소시엄 산하의 훈련받은 표준화 환자(SP)들이 시험에 투입되었으며, 12명 한 조로 무작위 배정된 학생들은 한 사례 당 10분씩 총 6개의 사례를 가지고 시험을 치렀다.

◎ 이화여대의료봉사단, 베트남 의료봉사 발대식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원장 : 박혜영)은 13일 이화여대 의학관에서 2010년 동계 베트남 이화의료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박혜영 의학전문대학원 원장의 축사와 김승철 이대목동병원장의 격려사에 이어 이대목동병원 간호부 및 약제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의 약품 및 의료용품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이번 2010년 동계 의료봉사단은 치과 전문의 교수, 산부인과 김영주 교수, 소아과 김혜순 교수, 이비인후과 김한수 교수, 흉부외과 김관창 교수를 비롯해 이화여대 의대 동문인 산부인과 개원의 김혜영 원장과 전공의, 약사, 간호사, 치위생사와 이화여대 재학생 등 총 2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월 15일부터 6박 7일의 일정으로 베트남 하노이 및 인근 지역에서 무료 검진과 진료, 특강 등 의료봉사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 의전원 학생들을 위한 BLS-P (Basic Life Support-Provider) 과정 개최

대한심폐소생협회(KACPR)와 미국심장협회(AHA)가 승인한 BLS Training Site인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BLS-P(Basic Life Support-Provider) 과정을 개최하였다. 이번 과정은 의학전문대학원 M2 학생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11월 6일 모든 과정을 완료하였다. 또한 M4 학생을 위한 BLS-P 과정을 10월 9일(토)에 개최하여 10명의 학생이 Provider 과정 교육에 참여하였다.



의료인 교육과정은 2005 AHA Guideline에 의해 진행되며,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AHA에서 제작한 DVD를 이용한 실습으로 이루어진다. Provider 과정 교육 참여 후 당일 시행되는 3회의 Skill test와 1회의 Written test에 합격한 교육생에게 한해 American Heart Association(AHA, 미국심장협회)에서 인증하는 영문자격증이 발급된다.

학생 및 교수 소식

[학/생/소/식]

* 이화행림제

지난 10월 22일 금요일 의학관 A동 김옥길홀에서 '이화 행림제'가 열렸다. 1년 동안 다듬어온 각 동아리의 공연과 끼 있는 이화인들의 '가요제'로 무대가 꾸며졌다. 피아노 연주 동아리 Etude에서는 '연탄곡'과 '슈베르트 즉흥곡'을, 검도동아리 '화검랑'에서는 멋진 '대련'을 선보여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밴드동아리 Infrared는 신나는 밴드 곡으로, 댄스동아리 '8seconds'와 서울대 댄스동아리 'FREEze'(찬조공연)는 박력 있는

댄스로 한껏 축제 분위기를 띄웠다. 이번 행림제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는데, 올해 처음으로 열린 '飛동 가요제'에는 총 6개의 팀이 출연하여 주체할 수 없는 끼를 선보였다. 참가한 모든 팀의 쟁쟁한 실력으로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공연이 펼쳐졌다. 2학년의 류지아, 배정아양의 '우리 사랑 이대로'가 1등상을 수상하며 화려했던 축제의 막이 내렸다. 축제는 '42대 학생회' 주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 추수감사 찬양제

11월 15일(월) 김옥길홀에서 교목실주최 추수감사 찬양제가 열렸다. EMO, CMF, 코엠, 암사, 달콤한 47(의전원 1학년 전원) 등이 참가하여 은혜롭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암사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공수해온 전통 악기 '앙쿠롱'을 이용해 독특한 연주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고, 추수감사 찬양제 최초로 한 학년 전체가 참여한 달콤한 47기는 'I will follow him'을 불러 영화 '시스터 액트'의 한 장면을 재연하기도 하였다. 최우수상에는 최수승 교수님의 지휘아래 달콤한 하모니를 선보인 "EMO"가 수상하였고, CMF, 코엠, 암사, 달콤한 47가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43대 학생회 선출

이화 의전원에 학생회가 새롭게 선출되었다. 43대 학생회 'Move'는 감동을 주는 학생회, 실천하는 학생회를 슬로건으로 이화의 사랑, 봉사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학생회장에는 김서영, 학생부회장에는 이지은 학생이 선출되었으며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교내 체육대회, 행림제 등 다양한 행사를 주최하고, 학생들과 학교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크리스마스 병원 봉사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교내 중창동아리인 '코엠'과 자원 봉사 학생들이 함께 목동병원 소아병동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루돌프 사슴고, white christmas,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등 다양한 노래를 멋진 화음과 함께 불러주었고, 공연 후 곰 인형과 함께 폴라로이드 사진찍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하였다. 이날 특별히 이화의 전 4기(M1) 학생들이 추수감사찬양제 때 상품으로 받은 형광펜과 동물 모양의 쿠키를 함께 환우들에게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교/수/소/식]

* 신입 교수 (2011년 1월 1일자)

소속	이름
안과학 교실	김윤택 교수

* 박혜영 의전원장, 의·치의학 교육 입문검사 협의회 이사장 선임



의·치의학 교육 입문검사(MEET/DEET) 협의회는 지난 2011년 1월 13일 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에 이화여대 박혜영 의학전문대학원장을 선임했다.

의·치의학 교육 입문검사 협의회는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치러야 할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를 시행 관리하며, 이 검사와 관련된 모든 연구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 정익모, 서석효 교수팀, 스트레스와 동맥경화의 인과관계 밝혀



정익모 교수



서석효 교수

스트레스가 동맥경화 등 심장 및 혈관질환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동물실험을 통해 확인됐다.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내 과학교실 정익모 교수, 생리학교실 서석효 교수와 강원대학교 김

영명 교수팀이 실험용 쥐 40마리를 대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스트레스를 하루 2시간씩 2주 동안 주면서 일부는 고혈압 치료제를 투여한 실험을 한 결과 스트레스를 받은 쥐들이 그렇지 않은 쥐들에 견줘 높은 쪽 혈압이 18mmHg가량 높아졌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회경제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며 “이 때문에 심장 및 혈관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한 연구”라고 말했다. 또 정 교수는 “심장 및 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식이조절, 운동과 함께 스트레스의 조절 및 관리를 위한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유럽동맥경화학회에서 발행하는 Atherosclerosis지에 최근 게재됐다.

* 전영우 교수, ‘젊은 성형외과의’상 수상

성형외과학교실 전영우 교수가 최근 개최된 대한성형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젊은 성형외과의’상을 수상했다.

‘젊은 성형외과의’상은 대한성형외과학회가 해외학회 논문 발표를 적극 유도하고 성형외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젊고 유능한 성형외과 의사를 발굴하고자 2006년에 처음 제정한 상으로 국제학회지와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우수 논문들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전영우 교수는 지난 8월, 세계 저명 성형외과 저널인 미국성형외과학회지(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8월호에 게재된 ‘이차성 구순 구개열 변형에서 복합조직 이식을 이용한 비주연장술의 장기 추적 결과’라는 주제의 논문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한편, 전영우 교수는 유방, 두경부 재건 성형 및 수부 미세 수술 등 미용성형 전문의로서 임상과 더불어 대한성형외과학회, 수부외과학회 등 다양한 학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화의료원(의료원장 : 서현숙)은 지난 11월 30일 KT와 모바일 병원 구축 협약을 갖고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대목동병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서현숙 의료원장, 김승철 병원장과 KT 계승동 기업고객 본부장, 김현섭 기업고객 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바일 병원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이화의료원과 KT는 ▶의료원내 유비쿼터스 업무 환경 확대 ▶유,무선 통합 서비스 기반 구축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병원 업무의 모바일 시스템 구축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네트워크 인프라에서부터 병원내 시스템의 이용 효율화는 물론 처방 전달 시스템(OCS),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PACS)등과의 연계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의료진간 협진이 가능해지며, 고객들에게는 모바일 환경에서 진료예약 및 예약조회, 의료진 정보 조회가 가능해진다.



동창회 소식

◆ 2010년 의대동창회 송년회 및 바자회 개최

동창회(회장 김태임23회 동호의원 원장)는 2010년 12월 7일 오후6시30분 롯데호텔2층 에메랄드룸에서



2010년도 송년회 및 이화의전원 해외의료봉사단지원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140여명의 회원 참여로 성황리에 이루어진 바자회에서는 이대목동병원 심장내과 편육범교수의 “개원의를 위한 고혈압치료의 최신지견”이란 제목의 학술강연이 열렸으며, 회원들의 물품기부와 현금기부를 통해 200여만원의 바자회 수익금을 얻었다.

◆ 김영지 동문, Indianapolis Top Doctor 선정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1982년에 졸업하고 현재 University of Indiana Riley Hospital 소아호흡기 교수로 재직 중인 김영지 동문이 Indianapolis 월간 Top Doctor(2010년 11월호)로 선정되었다. Indianapolis Top Doctor는 동료 교수들의 직접 추천으로 이루어지며 김영지 동문은 소아호흡기분야에서 Top Doctor로 선정되었다.



퇴임 인사

■ 신경외과학교실 박동빈 교수

1978년부터 33년간 이화의대에 신경외과학교실에 재직하며 신경외과 전문의 양성과 신경외과 발전에 기여한 박동빈교수가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신경외과학이 막 태동하여 발전하는 시기에 많은 논문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신경외과학 기반조성에 많은 기여를 해온 박동빈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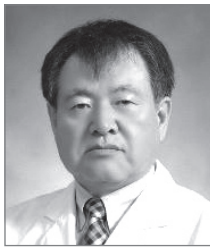
의료원 동정

◆ 이화의료원, KT와 모바일 병원 구축 협약식 체결

-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활용 신속 정확한 진료 가능
- 모바일 의료정보 조회, 진료 예약 등

수는 이화여대 신경외과학교실 주임교수 및 동대문병원 의무부장을 역임하며 후학 양성에 헌신해왔다.

퇴임을 2달 앞둔 박동빈 교수를 만나 신경외과의사로서의 30년과 이화여대에서의 삶과 퇴임 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1. 퇴임소감이 어떠신지?

물론 섭섭함을 감출 수 없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년이 다가올수록 65세라는 나이가 정년에 딱 맞는구나 싶게 몸에서 느껴진다. 퇴임 후 여러 가지 계획들을 생각하면 새로운 인생에 대한 흥분과 퇴임에 대한 홀가분한 감정도 느끼지만 아직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서운한 마음도 든다. 정말 복잡한 느낌이다.

2. 신경외과 의사로 30년 넘게 살아왔다. 퇴임을 앞두고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

신경외과 의사로 긴 시간을 보내왔고 퇴임을 앞두고 보니 이상하게 신경외과 의사가 된 햇병아리 시절이 생각이 난다. 해부학 실습 때 30초마다 “땡”하고 울리던 종소리에 맞춰 이동하며 답을 맞추던 “땡시험”도 잊을 수 없다. 단지 뇌해부가 재미있어서 신경과에 지망하게 되었는데 어찌보면 단순했던 그때의 선택이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당시에는 외과분야가 인기가 많았고 나 또한 그런 동경이 있었다. 그런데 막상 레지던트 시절에는 너무 힘이 들었다. 통금이 있던 시절이라 밤 12시만 되면 교통사고 환자가 많았고 늘 밤새 수술하고 아침 저널 미팅시간에는 꾸벅꾸벅 졸던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퇴임을 앞두고 보니 그런 시절을 보내고 벌써 퇴직해야 한다는 것이 신기할 지경이다.

3. 전공의들을 가르치면서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인가?

전공의 시기는 계속되는 당직업무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로 처음 한 달이 큰 고비이다. 그런데 4월이 지나도 아무말없이 묵묵히 열심히 하는 전공의들을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다. 나 역시 그런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지 알기 때문에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전공의들을 보면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한 마음이 든다. 그렇게 공부해서 전문의 시험 합격하고 찾아오면 내가 선생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그렇게 내 제자들 중 신경외과 전문의만 40여 명이 넘는다. 나보다 더 전문성있게 의사로서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을 보면 보람있고, 연말에 한 번씩 모여 서로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이 참 좋다.

4.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고리타분한 얘기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웃음). 좋은 의사는 기초가 튼튼해야한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만 더 부탁하자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공부 때문에 여유가 없겠지만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스스로 보람되는 일들을 하나씩 했으면 좋겠다.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학생 개인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겠지만 의사로서, 특히 신경외과 의사로서도 날카롭고 예민한 작업에 여유를 갖게 해준다. 나 또한 86년 비엔나 대학교 연수시절 오페라, 음악회 등을 시간 내서 찾아다녔다. 당시 즐겨 들던 고전 음악이나 유럽여행이 미세한 신경을 다루는 의사생활의 긴장을 많이 해소시켜준 것 같다. 또한 환자를 대할 때는 항상 내 가족을 대하듯 성실하게 임하기를 부탁드리고 싶다.

5. 그렇다면 이번에는 신경외과 의사로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지?

신경외과의 특성상 뇌출혈 상태에서 의식 없이 호송되어온 환자가 많은데 이 경우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고 마비 풀리고 걷기 시작하면 보람을 느낀다. 환자 중 한명은 가수생활을 하다가 사고로 위독한 상태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해 봉사활동을 신학공부를 꾸준히 해 목사가 되신 분

이 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이 자랑스럽다.

그러면서도 사망선고를 할 때, 어려운 형편 때문에 병원비를 걱정하시는 환자들을 볼 때는 마음이 아플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6. 좋은 말씀 잘 들었다. 마지막으로 퇴임 계획은?

퇴임을 앞두고 1,2년 전부터 퇴임 후 계획에 대한 생각이 무척 많았다. 아직은 전공을 살려 일해보고 싶은 마음과 그 동안 못해본 일들을 마음껏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교차한다. 일단은 음악도 많이 듣고 사진도 본격적으로 배워보고 싶다. 또한 가족과 함께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전국 방방곡곡 여행도 다녀보고 싶다. 그리고 봉사든, 기부든, 선교의료든 남은 여생을 꼭 보람 있는 일을 위해 쓰면서 보낼 것이다.

[약/력] △1972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78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

△1996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992-1998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 주임교수

및 과장 역임

△2000-2002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동대문병원 의무부장역임

대외협력위원회 소식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등 약정현황]

〈2010년 10~12월〉

기금명	후원자	약정액	비고
내과학교실발전기금	경난호	21,197,629	동창
	이순남	5,000,000	의대교수
예방의학학교실발전기금	하은희	6,000,000	의대교수

[선배라면 약정현황]

선배라면은 이화에서 새롭게 시작한 ‘선배라면 만원 이어달리기’ 캠페인입니다. 이화의 선배라면 누구나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달 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이 캠페인은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기념품으로 선배라면을 드립니다.

후원자	금액
조인호	16,400,000
이진화	9,600,000
박혜영, 신길자, 윤하나, 김진주	9,600,000 (각 2,400,000)
남은미	1,800,000
박숙자, 박은미, 이은엽	3,600,000 (각 1,200,000)
이순남	960,000
고경희, 김정환, 김양숙, 김정혜, 김현숙, 유경희, 이영옥, 최순옥, 최윤희, 최지하, 최혜영, 한종인	5,760,000 (각 480,000)
정혜경	360,000
서현숙	200,000
계	48,280,000

알/림/니/다

✦ 소식지 원고 모집

-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지는 분기별 (3/6/9/12월) 발행되며, 소식지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jkkim9999@ewha.ac.kr)
- 소식지 내용은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홈페이지(<http://www.ewhamed.ac.kr>) 내 학교소개/뉴스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동창 주소 변경 문의
(이화여대 동창회 사무실 TEL. 02) 2650-5782)